

"친구사이"는 보다 건전한 동성애 문화를 위한 남성들의 모임으로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에이즈 예방 및 퇴치운동 (에이즈 예방단체와 협력)
 - 동성애자 인권보호
- 동성애로 인한 고민상담
 - 친목도모
- 문화행사 및 소식지 발간
 - 기타

주소: 110-612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1246호
전화: (02) 3141-7942

친구사이

동성애 남성들을 위한 모임

소식지 제7호

- '친구사이' 새 회원제도 마련, 조직개편
- 동성애 수기집 '더 이상 슬프지도...' 출간
- 여성동성애 단체 '끼리끼리' 탄생
- "크라잉게임" 방송불가 판정에 대해
- 학술연구: 동성애의 역사적 고찰
- 동성애 영화 어떻게 볼 것인가?
- 인물탐구: 차이코프스키

새 회원제도 마련 정, 일반회원을 '회원'으로

그 동안 '친구사이'에서는 현재 정관에 명시된 회원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탈피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여 새로이 회원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회원제도를 통합하여 '회원'이란 타이틀 안에 묶어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좀 더 알찬 내실과 단결된 힘을 보여주기 위한 작은 바람이었다는 것을 많은 회원 여러분들과 비회원 여러분들께 말씀 드리며,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6개부서로 나뉘어져 있는 조직을 통폐합하여 모두 다섯개 부서로 나눌 예정입니다. 현재, 편집부, 사업부, 총무부, 학술부, 회원관리부, 홍보부 등 6개부서로 나뉘어져 있는 조직

을 홍보부와 사업부를 통폐합하여 문화부를 신설하고, 학술부와 편집부를 통합하여 학술편집부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기존의 총무부와 회원관리부는 그대로 지속하는 반면, 상담전화의 중요성을 상기하여 상담부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서 문화부, 상담부, 총무부, 학술편집부, 회원관리부 등 다섯개의 부서로 개편이 되겠습니다.

영화, 다큐멘터리 상영

'친구사이' 총무부에서는 매주 토요일 PM 07:00, 사무실에서 작은 영화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11월 11일에는 헐리우드에서 최초로 제작된 동성애 주제의 영화 '두남자 - 원제: MAKING LOVE'를 상영했고, 12월 3일에는 일본 후지TV에서 방송된 다큐멘터리 '밝은 표정의 동성애자들'을 상영했습니다. 12월 17일에는

인권운동의 애기를 담은 'POWER OF ONE'을 상영했는데 많은 회원들이 모여 영화관람을 하였으며, 관람이 끝난 후에는 주제로론으로 이어지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친구사이' 총무부에서는 외국어대 부탁으로 교지에 실릴 동성애를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하기로 하고, 그 원고를 마감하였습니다. '원손잡이와 오른손잡이는 다르지 않다'라는 제목의 원고는 현재 국내 동성애자들의 고통과 실태, 현 사회에서 보는 왜곡된 동성애자들의 이미지와 우리들의 항변들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동성애 수기집 발간

기존의 사업부와 홍보부가 합쳐진 새로운 부서인 '문화부'에서는 12월 20일 전후로 발간 예정인 동성애자들의 수기집 '더 이상 슬프지도

부끄럽지도 않다'의 제반 업무를 두달여 동안 진행했습니다. 총 10명의 동성애자들의 삶의 기록인 이번 수기집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고뇌의 삶과 고통, 그리고 세상의 폭력적인 시선에 앞서 허물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랑이 담백한 필체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장자못' 출판사(대표 김순섭) 발행 한국 최초의 동성애자 수기집 '더 이상 슬프지도 부끄럽지도 않다'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간지 광고와 함께 전국 유명서점에 배포되며 '장자못'출판사에서는 전화/우편주문도 받는다고 합니다. 우편주문 및 기타 문의는 아래의 전화번호로 하시기 바랍니다.

TEL: 453-7656~7

FAX: 453-7658

장자못 출판사

동성애 학술서 기획중

그간 학술부에서는 몇몇 출판사들을 상대로 서적발간을 기획해 왔습니다. 95년 7월 발간 예정인 이번 책자는 94년 12월 중순에 발간되는 수기집과는 달리 동성애자들의 일상과 삶을 학문적인 연구를 토대로 기획되는데 이번 책자가 국내에서는 제대로 구성된 동성애에 관한 연구집이 단 한권도 없었다는 아쉬움을 나름대로 충족시켜 줄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함께 동참해 주신 출판사 '열린 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상담부 신설과 함께 상담자 교육강화

지난 1년동안 많은 분들의 상담을 받아본 결과 상담전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새로이 신설된 상담부에서는 기존 상담자들의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 상담자 교육 시스템을 마련중입니다. 그 내용은 동성애 고민상담 및 동성애자들을 위한 정보제공, 에이즈 예방교육과 공포증에 대한 상담, '친구사이' 회원 가입을 위한 가이드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부분에 걸쳐있습니다. 매달 1회 상담자 교육을 실시하며 상담자 토론회도 계획중이라고 합니다.

12월 24일 송년 파티!

10월 초 '친구사이' 단합대회 겸 체육대회를 무사히 마친 회원관리부와 문화부에서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위해 파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재동에 소재한 카페 '하락'에서 총회와 함께 열릴 송년 파티(12월 24일 오후 6시)에 많은 회원분들이 선의와 차이를 버립니다.

스 스 로 어 둠 을
밝 히 는 삶 . . .



여성동성애 단체 "끼리끼리" 탄생

11월 27일 한탄강에서 발대식 및 MT를 시작으로 여성동성애 단체 '끼리끼리'가 드디어 탄생되었습니다.

발대식에서 '끼리끼리' 구성원들은 지난 6월에 있었던 뉴욕 동성애 페스티벌과 일본 동성애단체 OCCUR의 다큐멘타리의 시사회를 가졌으며 이어 12월 10일에 소식지 제1호를 발간하였습니다. 소식지는 "끼리끼리"를 만들기까지의 어려움과 격려문, 수필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에 친구사이는 여성동성애 단체 '끼리끼리'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많은 기대와 성원을 보냅니다.

'끼리끼리'에 관심 또는 참여, 그리고 후원을 보내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꼭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편지와 상담전화도 받는다고 합니다.

호출: 015-217-4179 발신자 전화번호 + 79
전해성

주소: 우편번호 110-618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816호 "끼리끼리" 앞

제2회 영화의 밤 계획중

12월에 개최 예정이던 제2회 영화의 밤은 좀 더 알찬 내용을 위해 95년 3월로 연기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영화를 선별하는 중이며 장소는 강남구 양재동 소재의 카페 '하락'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행사계획은

G.World 세계인 게이



미국

미국의 월간지 'OUT' 11월호 특집에 할리우드 연예계의 동성애자에 대한 기사가 30페이지에 걸쳐 실렸다. 이 기사는 현재 할리우드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프로듀서, 극작가, 배우, 작가, 감독 등 각계에 걸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본인들의 직접 인터뷰나 기고를 담은 이 기사는 미국내의 동성애에 대한 시각변화를 볼 수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 연예인이 동성애자임이 밝혀진다는 것은 곧바로 파멸을 의미했었다. 그러나 이번 특집 기사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신중하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너그러운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고, 동성애자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떳떳하게 주장하고 있다.



독일

독일 의회 최초의 공개적 남성동성연애자인 풀커 백 의원(33)은 2년반 동안 동거한 프랑스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쾰른 당국에 결혼허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6일 녹색당 후보로 당선된 백 의원은 결혼허가 신청이 각하됐으며 '나는 법적으로 독신이기 때문에 만일 내가 중병으로 입원하더라도 내 애인이 나의 수술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주거임대계약에 서명한 내가 사망하면 그 유족은 쫓겨나야 할 판이다'고 당국의 조치를 비난했다. 독일의 동성애자 수는 남성 2백만명, 여성 1백 20만명으로 모두 3백 20만명으로 추산된다.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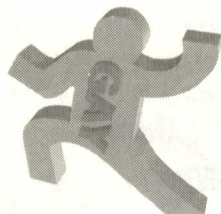
최근 인도의 가장 큰 교도소인 델리의 티하 교도소의 감시소장인 키란 베디는 동성애를 불법이라고 규정짓는 형법 377조항에 따라 수감자들에게 콘돔을 공급하기를 거부했다고. 이에 인도의 ABVA는 377조항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개 탄원서를 제출했다.

ABVA는 1988년 설립되어 게이&레즈비언 해방과 에이즈 퇴치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ABVA는티하 교도소의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콘돔 배포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이미 70년대 초에 미국의 '정신의학회'와 '세계건강협회'에서 동성애를 비정상도, 열등한 성적지향의 선택도 아니라고 결정했는데도, 일본의 정신의학과 신경학계에서는 여전히 모호하고 경멸적인 태도로 동성애를 정의하고 있다. 지금 일본의 정신학과 신경학계가 편견없는 태도로 동성애를 정의하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일본의 교과서는 동성애를 단지 이성의 역할 대용으로서 동성의 파트너를 찾는 경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정신의학자들은 레즈비언과 게이들에게 적절한 관심을 주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않고 있다. 신경학자들은 오래된 신경학 이론을 끌어내 동성애를 치료하기 위한 헛된 노력을 계속해 왔다. 1993년 5월 '레즈비언, 게이 운동 연합' (OCCUR)은 동성애에 관한 정신의학과 신경학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요청했고 같은 해의 5월에 그 주제에 대한 첫번째 토론회를 열었으며 거기에서 즉각적인 답변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정신, 신경학회는 일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동성애를 병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OCCUR와 동경시는 이 문제로 법정에서 공방중에 있다. 5월 30일 동경지방법원은 동경시 소유의 '젊은이 센터'(유스호스텔처럼 젊은이들에게 싸게 방을 대여해주는 건물)에서 그들의 성향을 문제삼아 숙박을 거부당한 OCCUR 회원들에게 동경시가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하도록 명령했다. 이 소송은 일본법정이 동성애를 합법적인 성적지향의 형태라고 인정한 첫 사건이다. 동경시는 동경대법원에 항소할 계획이고 동성애를 정신적으로 병적 상태라는 주장을 계속할 계획이다. 계속되는 일본 정신, 신경학회의 동성애에 대한 정의는 '어커'의 법정 소송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1973년에 미국의 정신의학회는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성향태도, 이성애보다 열등한 성적지향도 아니라고 정의했지만 여전히 일본의 대부분의 의학서적과 정신학자들은 동성애를 변태적인 성행위, 또는 비정상적인 성관계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레즈비언과 게이들이 받고 있는 사회적인 편견을 제거시키려는 최근의 국제적인 추세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파리

1994년 11월 1일, 41개국 정부의 정상들이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전세계적인 활동에 대한 서약에 합의하기 위해 파리에서 만났다. 이번 에이즈 수뇌 회담은 프랑스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세계건강기구와 연계해서 구성되었다. 이것은 정치적인 차원에서 에이즈 퇴치를 위한 싸움에 사회 모든 분야의 동참을 요구하고, 전적으로 에이즈만을 다룬 첫번째 정상회담이다.

이번 회담에서 세계건강기구는 '국제 레즈비언 게이 연합 (ILGA)'을 초청했다.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동성애자간의 AIDS 감염에 적절한 예방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동성애라는 것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나라도 있다. 이에 ILGA의 에이즈측은 다음 3가지 사항을 주장했다.

- ① 예방: AIDS가 모든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지만, 동성애자들이 감염에 더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들은 이 현실을 인정하고 비강제적인 방법으로 게이사회에서 HIV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해서 예방역학에 따라 체계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② 관심과 지지: 레즈비언, 게이, 그 외 성적 소수집단들은 흔히 건강관리 종사자들의 차별에 의해 불평등한 건강복지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동등한 건강복지혜택을 동성애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방안을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
- ③ 차별/법적 문제: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있어 매우 불리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것은 레즈비언이나 게이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동성애나 그것의 표현을 범죄라 규정짓는 모든 법률을 없애야 한다.

브라질



잘 알려진 브라질 게이 운동가인 클라우디오 올란도 도스 산토스는 1994년 5월 24일 경찰에게 심하게 구타당했다. 심한 타박상과 그에 따른 입원으로 도스 산토스는 지난 ILGA의 국제회담의 참가를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 클라우디아 도스 산토스는 브라질 게이 인권단체인 ADDEH의 회장이다. 도스 산토스가 제출한 소장에 의하면, 그는 5월 24일 저녁에 산타 카타리나 건강관에서 지급된 콘돔을 배포하고 있었다. 저녁 9시 쯤 경찰차가 다가오자 도스 산토스와 같이 있던 여장남자는 도망갔고 그는 그 자리에 남았는데 경찰은 그에게 콘돔배포를 중지하지 않으면 수감시키겠다고 위협했다. 도스 산토스는 즉시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경찰들의 위협을 신고했다. 그가 전화한 것을 알고 경찰들은 도스 산토스를 발로 차고 경찰봉으로 때렸다. 그는 수감에 채워져서 경찰서에 끌려갔고 그곳에서 다시 구타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그의 개인적인 물건들이 깨졌다. 도스 산토스는 산타카타리나 변호사회회뿐만 아니라 시경찰국에 공식소장을 제출했다. 최근까지도 그런 행동을 한 경찰들에 대한 결정적인 제재가 없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대법원은 30일 국영 엘알 항공사 승무원이 사원의 이성배우자에게 주고 있는 특혜를 자신의 동성애 파트너에게도 줄 것을 회사측에 요청한 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판결. 조너던 다니엘레비츠라는 이 승무원은 회사가 사원의 이성배우자에게 주는 무료항공권등 각종 특혜를 자신의 동성애 파트너에게도 주도록 처음 지역노동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뒤 지난 5년동안 소송을 계속해 이날 대법원 재판에서 마침내 승리한 것인데 엘 알 항공사측도 '판결을 그대로 존중하고 지킬 것'이라고 다짐.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으로 40대인 다니엘레비츠는 이 익명의 동성애 파트너와 지난 15년간 동거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동성애자들은 이번 판결이 동성애에 대해서 비교적 보수적인 이스라엘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임명.

멕시코

1992년 6월에 멕시코시티에서는 다섯명의 동성애자들이 암살을 당했다. 그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남아있고 멕시코의 전국인권협회인 CNDH는 일련의 일관성없고 무성의한 조사 과정이 인권을 침해했다고 최근에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다섯명의 희생자들은 1992년 6월 끈에 묶여 질식사한채로 발견되었다. 희생자중의 한 명인 프란시스코 데스트라 발레는 에이즈예방 단체인 "AVE de Mexico" 의 설립자이자 회장이다.

캐나다

동성애자임을 자타가 공인하는 캐나다의 폴 의원은 최근 보건국의 한 여성장관이 동성애자들이 무분별하게 에이즈를 퍼뜨리고 다닌다는 말에 격분, 그녀를 찾아가 무지하고 염치없는 인간이라고 호되게 싸웠다고. 폴 의원에 격려를.....

학술연구

동성애의 역사적 고찰

동성애의 한국사적 고찰

신라시대 화랑제도는 한명의 화랑 밑에 여러 남도가 있어, 체력 훈련과 학문연구를 하여 집단생활을 요구했다. 이들은 엄한 규율과 철저한 전투속에서 남다른 애정을 느끼고 살았던 것 같다. 진흥왕 때 사다함은 17세에 친구 무관량이 죽자 7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다가 따라 죽었다. 이들의 사이가 사랑인지 우정인지 알수는 없지만 각별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효소왕 때 향가 <모죽지랑가>에서도, 낭도인 득오곡이 죽지랑을 사모하여 칭송하는 구절이 있듯이 이들의 공동체적 생활과 낭만적인 문화생활에는 서로의 애뜻한 마음이 곳곳에 배어있다.

36대 해공왕은 원래 女子로 태어날 운명이었지만 父王인 경덕왕이 신에게 빌어 아들로 태어났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여성적인 취향이 강하여 여자의 옷과 놀이를 즐겼다고 <삼국유사>는 전한다. 그는 나약한 통치자에 감양상(선덕왕)의 쿠데타로 비참한 죽음을 맞는다.

고려 공민왕은 왕비 노국공주가 죽자, 4명의 후궁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1374년 자제위라는 기관을 두어 미소년들을 뽑아 그들과 더불어 즐겼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는 자제위를 시켜 후궁들을 옥보이고, 흥륜이라는 자제위의 손에 살해당한다. 조선시대는 유교적 질서를 확립시키는 시기로 태종~세종년간에 풍속 사범들이 자주 처벌당하는 기록이 나온다. 가부장적, 남성우월적 문화가 뿌리깊이 박히기 시작하여 性을 언급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금기시하면서 양반들의 위선과 은밀한 타락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세종 때 세자빈 봉씨는 궁녀들과 사랑을 나누었다하여 폐위되었는데, 당시 궁녀들의 애정행각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남사당은 서민들의 놀이문화를 선도하는 집단으로, 역시 남자들끼리

가난한 떠돌이 생활을 하다보니 생계를 위해 남자들에게 매춘을 하는 행위가 보편적이었다. 얼마나 많은 양반들이 도덕적 규범에 묶여 이들을 하룻밤 쾌락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만족했을까를 생각하면 한없이 서글픈 생각마저 든다. 남사당은 암동모니 숯동모니 하여 어린 소년과 어른이 한쌍이 되어 살았다. 그들의 예술적 재능도 그런 감정에서 녹아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조선 이전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性文化 속에 동성애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이 인정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500년간의 암흑시대는 인간의 감정을 보수적으로 동결시키고 불합리한 제도로 억압하였다. 그러한 봉건적 관념이 아직도 우리의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동방예의지국>이니 하면서 性을 은둔과 수치로 여기면서 각자가 性경향을 숨기고 사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숨기고 덮는다고 해도 해결될 일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면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속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인 것이다.

서양 역사속에서의 동성애

동성애의 시작은 정확하게 추정되진 않지만 인류가 존재했던 때부터 인간모습의 단면으로 늘 존재해왔던 것 같다.

서양에서 동성애(Homosexuality)에 대한 담론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플라톤의 철학에 의해 모양을 갖추었다. (플라톤의 저서 '향연' 참조)

중세시대에 와서 동성애는 기독교적 두려움에 의해 비자연스러운 성으로 간주되어 억압받았다. 이 시대에서 동성애가 억압된 근거는 기독교인의 금욕주의와 인간육체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찾을 수 있다. 신약성서에서 보이는 엄격주의 경향은 세속에 대한 거부를 드러내며 금식, 기도, 고행등의 모든 행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 자제였다. 중세 기독교의 전통속에서 인간의 육체는 예수의 육신처럼 신성한 것이었고 육

체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썩고 부패한다는 사실이었다. 배설물은 인간의 운명(죽음)을 상기시키는 의미로 작용했고 서양정신사에서 향문의 기능은 도덕적 질서에 반대하는 악, 어둠, 죽음, 반란의 상징이 되었다.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지옥의 구조는 어둡고 구불구불하고 악취가 나는 배설기관과 흡사하였고 그들은 최악의 역겨움을 지옥-향문-과 연결지어 생각하였다. 따라서 향문 성교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최후의 악의 형태로 여겨졌으며 구세주를 찾으려 시도하는 그들의 고결함에 대한 폭력 이요, 위협이었다.

중세 교부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변태적 악덕행위'중의 하나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관계'(동성애)를 꼽았으며 이것을 'sodomy'(남색,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에서 유래)의 악덕'으로 규정지었다.

근대로 넘어오면, 유럽의 대도시엔 지하-동성애 공동사회가 존재하였으나 인식과 행위의 덮개에 가려있어 결코 동성애와 동성애자들의 존재는 양성화되지 못하였다. 그들을 지칭하던 은어 역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19C 후반에서 20C 초반의 영국 사회에서 중상계층의 남성들은 공립학교, 군대, 대학 등에서 국가에 대한 가치, 충성 등을 강요 당했으며 그들의 호모에로틱한 감수성은 억압받았다. 동성애 행위 자체가 엄격하게 죄악시되었는데 1895년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동성애로 체포, 투옥된 분위기가 당시 영국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한다. 영화 <모리스> 또한 당시 영국사회의 분위기를 담고 있는데, 모리스와 클라이브, 모리스와 알렉의 동성애는 구시대적 사회인습에서 탈피하려는 사회저항(비록 강력하지 않다 해도)적 자유의지의 의미로 읽힐 수 있다.

성에 있어서 의학적, 교육적, 심리적 과학화가 발생, 성장했던 19C 후반까지 동성애에 대한 용어들, 그리고 성적 행위들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역사적 조직화는 연구되지 않았다. 미셸 푸코는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변화사투를 19C로 잡고 있다.

최근에 역사학자들은 역사에 있어 남녀 동성연애자와 동성연애의 역할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AIDS

에이즈 검사를 받자

중구 보건소 편

평소에 에이즈 검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혹시 내가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검사하는 곳에 갔을 때 검사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 어떡하나까지 가지가지 생각이 괴롭히곤 한다.

생각해보면 에이즈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장소가 바로 보건소가 아닐까 생각한다. 각 구마다 구청 옆에 마련되어 있는 보건소는 60년대처럼 국민위생에 많은 영향을 발휘하지는 않지만 유일하게 공짜로(혹은 조금만으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중구 보건소의 위치는 지하철 충무로 역에서 내려 진양상가쪽으로 나오면 귀여운 강아지를 파는 애완견센터가 죽 늘어서 있는데 귀여운 강아지들을 보면서 몇분 지나가면 사거리가 나오고 왼쪽으로 3분정도 걸어가면 중구청이 나온다. 중구청 옆에 붙어있는 중구보건소는 흡사 동사무소 입구같은 느낌을 준다. 민원실이 있는 1층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 복도의 외쪽 끝으로 가면 60년대 병원의 느낌을 주는 병리검사실이 있다.

어느 보건소를 가나 에이즈 검사는 병리검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 가서 여기저기 물어볼 필요없이 벽에 걸린 총별사인을 보고 무조건 병리검사실로 가면 된다.(필자는 처음 갔을 때 에이즈 검사하는 데가 어디냐고

민원실 아가씨들에게 뻘뻘하게 물어보았다. 으-)

중구보건소의 검사원은 총 다섯명으로 하루에 100명정도의 남자(여자도 가끔있다고...)가 검사를 받고 간다니 검사를 받을 사람들은 특별히 죄책감같은 것을 느끼며 갈 필요가 없다.(그 100명중에 묻히면 되니까) 검사에는 3-4일정도가 걸리고 자체에서 모든 검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간단히 주민등록증으로 신분증명을 한 후, 팔을 걷고 약간의 피를 뽑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검사원들은 생각보다 친절하고 이상한 눈으로 보지도 않으며 어떤 이유도 묻지 않는다. 에이즈 보건 여부가 판명된 사람에게만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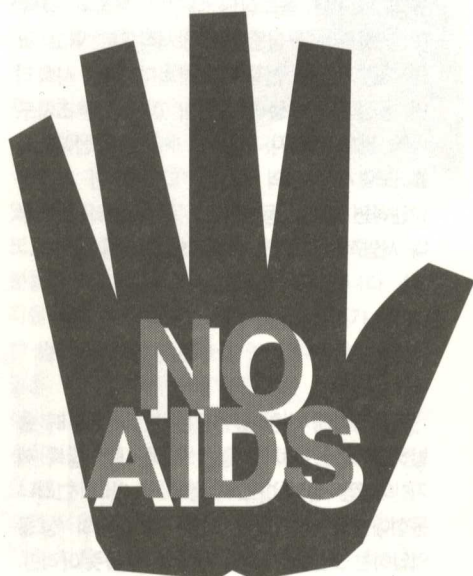
화를 걸어 감염여부를 알려준다는 검사원에게 이곳 보건소에서도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로 판명된 사람이 있다고 문자 건 말해줄 수 없다는 것으로 보아 비밀보장은 잘 되는 것 같다.

들어갈 때 1층 민원실에서 간염검사를 받는다고 말하고 1400원짜리 검사증을 떼어가면 동시에 간염검사와 VDRL(매독)검사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검사 결과의 확인은 검사일로부터 4일정도 후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할 수 있는데 전화번호는 260-14370이다. 전화를 걸어서 기록부에 적은 이름을 대면 검사여부를 알려준다.

검사를 받고 나오는 기분은 생각보다 좋다. 4일간 기다리며 여러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통해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건강한 몸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만 하지 않을까... 자신만 조심하면 세상에 불행이란 없을 것이다. 이 기회에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

by Sangsoo



친구사이에서는 동성애 또는 AIDS로 인한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편지, 전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상담전화 : (02) 3141-7942
상담시간 : 오후 8시 - 11시까지
상담주소 : 110-612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1246호

전국 AIDS 상담/검사기관 전화번호

국립보건원 면역결핍연구실
02-380-1696~8

전국 각 국립검역소

서울 02-664-9401~4

부산 051-463-3501~2

인천 032-883-7502~3

군산 0654-445-4239

목포 0631-44-0941

여수 0662-62-2367

충무 0557-645-3597

마산 0551-46-2443

김해 051-973-1922

울산 0522-61-7092

포항 0562-47-2713

동해 0394-522-5952

제주 064-58-3859

한국 AIDS 연맹

02-747-4070~2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02-604-7007

부산 051-553-6611

대구 053-754-0203

인천 032-884-0330

경기 0331-44-8228

강원 0361-51-4400

충북 0431-233-1100

충남 042-523-0660

전북 0652-75-0020

전남 062-363-4040

경북 053-953-0313

경남 0551-42-0066

제주 064-47-1121

기타 각 보건소

영화 동성애 영화 어떻게 볼 것인가?

PART 2

4

〈크라임 게임〉은 아카데미상 6개 부문 후보로 올랐다가 각본상만 가져간 영국영화. 영화를 만든 아일랜드 출신 감독 닐 조단은 80년대 영국 신세대 영화운동의 기수로, 세번째 작품 〈모나리자〉로 칸영화제 그랑프리상을 받았다. 그의 최근작인 〈크라임 게임〉은 시중 영화의 배경을 이루는 런던이나 북에이레의 날씨처럼 금세 비라도 내릴 듯 축축하고 음울한 색조의 영화다. 이런 색조는 보이 조지의 노래를 주인공이 다시 부른 주제곡 〈크라임 게임〉의 척척 휘감기는 리듬엔 브루스폰 영화음악과도 섞인다. 이같은 영화적 무드는 '모든 것을 잃은 다음의 여유'에 닿아 있고 이를 통해 영화의 주제 속으로 들어간다.

이 영화는 두 개의 장으로 나뉘는데, 첫번째가 에이레공화군의 아지트이고, 두번째가 런던 거리다. 에이레공화군 아지트에 한 흑인 영국병사가 납치돼 온다. 공화군은 영국정부에 수감중인 동료와의 포로교환을 요구하고 영국정부는 이를 거부한다. 이제 이 영국군 인질에게 죽음 이외의 선택이 없다. 이 인질이 아지트에 억류돼 있던 며칠 동안 인질과 감시병 사이에 인간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 인질은 감시병에게 애인의 사진이 들어 있는 자신의 지갑을 건네주고 자신이 죽은 뒤 그녀를 만나 지갑을 전해줄 것을 부탁한다. 인질이 죽는 날, 에이레공화군 아지트도 영국정부군의 포격으로 쑥밭이 된다.



영화 〈크라임 게임〉의 한 장면

감시병인 주인공 퍼거슨은 테러리스트와 인질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중간자이다. 그는 에이레공화군과 영국군이라는 두 개의 폭력 사이에서 에이레공화군 편을 택하지만, 전문 테러리스트의 직업적 냉혹함을 지니지 못하고, 냉혹한 테러리스트의 세계에서 오히려 상처받는 인물이다. 이런 중간자를 주인공으로 택한 것은 작가로서는 당연하다. 변경에 선 사람에게 어느 쪽이나 다 들여다보이기 때문이다. 테러리스트의 세계와 그 바깥, 동성애의 세계와 그 바깥, 여러 다른 가치들이 간섭하고드는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서로 부딪치는 세계들 사이의 경계를 따라 걷는다.

이제 무대는 런던으로 옮겨진다. 에이레공화군의 퍼거슨은 죽은 흑인 인질의 애인을 찾아가는데, 그녀는 미용사이다. 애인의 사진들로 뺨뺨히 장식된 그녀의 방에서 애인의 죽음이 통지된다. 애인의 죽음, 조직(이념)의 파괴, 절망을 공유한 두 사람은 곧 '구원받고 싶고, 또 구원하고 싶은' 대상으로 서로에게 달려든다. 그러나 이 여자가 남자임이, 다시 말해 흑

인병사와 동성애관계에 있던 게이임이 밝혀지는 순간, 주인공 퍼거슨은 역겨움과 배신감으로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한다.

그러나 모든 믿음들---이념이다 이성애(異性愛) 따위에 관한---이 혼돈 속으로 흩어져가면서 주인공은 이 게이와의 관계에서 완전한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다음의 여유이자 포용이다. 그래서 이들의 동성애는 비극적인 아름다움을 발산한다.

다시말해 주인공은 영국사회의 이면에 감추어진 두 개의 다른 문제들, 즉 에이레문제에서, 하나의 소외에서 또다른 소외로 건너간다. 닐 조단은 폭력과 착취와 소외가 뒤엉켜 있는 세계의 악마성을 보고하는 데 탁월한 작가이고, 〈크라임 게임〉도 그 연장선 위에 있다. 이 영화는 온갖 고정관념들의 배타성과 폭력성을 야유하면서, '뒤집어 생각해보기'를 요구하고 있다. 가령 주인공에 대한 동료 여성 테러리스트의 애정---전통적인 이성애의 범주에 속하는---은 소위나 명령의 개념에 가까운 데 반해, 게이와의 동성애는 공평함과 헌신성에 기초해 있다.

다만 이 '뒤집어 생각해보기'가 에이레공화군에 대한 한 에이레 출신 영화감독의 도덕적 파산선고를 전제로 깔고 있다는 것은, 달갑지 않은 일이다. 2백년에 걸쳐 영국문화에 동화된 북에이레의 다수집단인 기독교도가 이제는 독립을 원치 않는다 해도, 영국의 북에이레 통치는 19세기 대영제국-아일랜드 연합왕국에서 비롯된, 아직 청산되지 못한 식민주의 시대의 한 잔재로 남아 있음은 명백한 잔재로 남아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인류는 성과 범죄를 연결시켜왔다. 이제 그런 버릇은 거의 가셔졌지만, 아직도 부부관계 바깥의 주변적인(청소년이나 동성이나 근친간의) 성에 대한 일반의 상식은 마찬가지다. 실제로 동성애를 범죄행위로 규정해 투옥시키는 나라도 있다. 러시아처럼, 게다가 10년 전에 등장해 놀라운 파괴력을 과시하는 에이즈라는 질병은 동성애가 범죄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확실한 물증을 제시했다. 동성애는 종말론과 연결지어지기까지 했다. 이때문에 동성애주의자들의 입지가 위축됐던 점을 감안하면, 〈필라델피아〉가 동성애에서 나아가 에이즈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온 것은 대단한 용기이다.

그리고 그 용기가 클린턴 정부의 출범에 의해 부쳐졌다는 추리도 가능하다. 동성애단체로부터 3백만달러의 선거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클린턴은 게이와 레즈비언들을 요직에 기용했으며, 동성애자에 대한 군입대 허용 등 각종 동성연애자 인권보호조치들을 추진해왔다. 취임 첫해인 지난 해 워싱턴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동성애자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이제 에이즈환자에 대한 해고의 적법성을 따질 분위기는 조성된 셈이다. 헐리우드는 동성애자 밀집지역이며, 메이저영화사 제작자들 여럿이 게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약 2천 5백만, 인구의 약 10%로 알려진 미국의 동성애 인구가 동성애 영화의 상업성을 보장한다.

〈크라임 게임〉의 동성애를 제초한 것이 닐 조단의 작가주의라면, 〈필라델피아〉의 동성애를 떠받치는 것은 헐리우드 상업주의라 보아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헐리우드의 상업주의는 람보의 폭력만능이나 피터 팬의 동화를 팔기도 하지만 장사가 된다면 미국의 정치적 음모나 동성애를 소재로 택하기도 한다. 〈필라델피아〉의 감독 조나단 데미의 이전 작품들, 가령 〈크레이지 마마〉 〈분노의 산하〉 〈

썸씽 와일드〉 〈양들의 침묵〉 등 코미디에서 액션과 써스펜스에 이르는 다양한 작품 편력을 되짚어보면 그것은 좀더 명백해진다.

동성애자의 인간적 권리문제에 주력하는 이 영화의 컨텍스트 자체에서는 어떤 결함을 발견하기 어렵다. 대신 이 영화가 언급을 생략하고 있는 부분, '동성애주의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검토는 우리 몫이다. '왜 어떤 사람이 동성애주의자가 될 수 밖에 없는가?' 그리고 한국 관객들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흔히 동성애는 잘못된 가정환경, 감옥이나 군대 같은 폐쇄집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되거나, 또는 일종의 정신병이나 성적 도착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그것이 DNA 구조의 결함에 의해 유전된다는 학설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동성애 인구가 미국에서는 10%인 데 비해 한국에서는 고작 약 0.05%로 나타난다는 것은, 생물학이나 유전학적 이유를 떠나 미국사회에 대한 별도의 문화적 이해를 요구한다. 미국 또는 서양사회의 어떤 특수성이 동성애자를 양산해내는가.

많은 헐리우드영화가 가족관계의 파탄을 다루고, 대통령 후보가 가족의 가치를 정치슬로건으로 내걸 정도로 현재 미국사회에서 가족은 위기를 겪고 있다. 이혼의 보편화와 가족관계의 파탄은 가족내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역할을 허물고, 성장기 자녀들에게 가족과 부부관계 속에서의 남녀 성역할에 대한 기대를 일찌감치 꺾어버린다. 또한 해체된 가정, 느슨한 동료집단에서 놓여난 청소년들은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정서적 연대를 찾아나서고, 대단한 결속력을 갖는 게이문화가 이들을 흡인한다(〈필라델피아〉가 동성애 주인공을 화목한 대가족의 일원으로 설정한 것은 동성애를 일탈이 아니라 정상의 문화로 이해시키려는 감독의 전략의 결과로 보인다).

가족주의를 지탱하는 남편이자 아버지의 책임, 또는 아내이자 어머니의 봉사, 이런 강박들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간관계를 꿈꾸게 만드는 극단적인 자유주의도 게이문화의 한 원동력이다. 생식을 떠난 순전한 쾌락으로서의 동성애의 확산은, 인구가 충분하고 집중적인 노동력 동원이 요구하지 않는 고도 산업사회를 결정적인 조건으로 하고 있음을 물론이다. 가족단위의 노동력 생산과 그 집중적인 투입이 필요하던 농경사회에서는 허용될 수 없었던 것이다.

한국사회는 아직까지는 가족간의 끈끈한 유대, 교우나 동료집단 내부의 우정과 결속, 이런 것들이 구성원들을 정서적으로 엮고 있는 그런 반(半) 전통주의 사회다. 이런 사회라면 동성애를 수용하기 위한 어떤 담론조차도 아직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동성애영화를 보면서 서양의 정신이 다다른 한 지점을 발견하면 된다. 동성애는, 동성애영화는 너무나 서양적인 그리고 미국적인 주제인 셈이다.

5

동성애에 대한 발언들은 프로이트부터 출발하는 지난 1세기에 걸친 '성'에 대한 침묵 깨기 대장정 위의 어느 지점에 와 있다. 그러나 동성애영화가 '생식을 위한 것 이외의 성'을 억압하는 사회에 대한 '해방의 팜플릿'이라면, 적어도 지금의 한국에서 이 팜플릿은 선부른 구호들을 부르짖고 있는 셈이다. 왜냐하면,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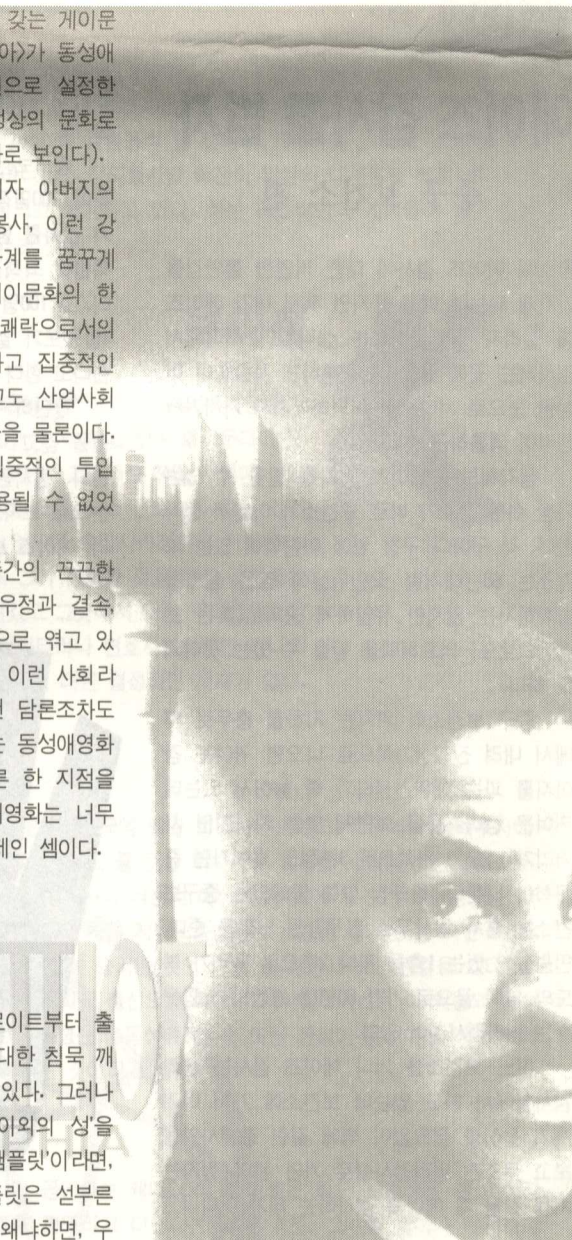
리는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단지 내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가 읽히고 관망하며, 감간당한 처녀에게 자살에 이르는 수치를 강요하고 자궁수술로 처녀막을 잃은 소녀에게 위자료소송을 걸게 하는, 그런 성문의 19세기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국인들은 동성애 소극에 웃고름을 풀기에 아직 그 위에 끼입은 봉건 성 문화의 옷들이 너무 두텁다. 한국산 게이문학의 씨를 뿌린 산의 〈하이힐을 신은 남자〉나 장정일의 〈그대는 아무도 모른다〉 같은 소설들이 호기심 이상의 정당한 문학적 조명을 받지 못한 것.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 end --

이상의 글 창작과 비평 여름호에 실 조송희씨의 글 옮긴 것임



영화 〈필라델피아〉의 출연배우들



독자의 나

독자의 난에 평소 여러분이 '친구사이'나 사회에 바라는 점, 혹은 고쳐나 가야 되겠다고 느끼는 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을 위한 자리입니다.

친구사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사이' 소식지 제 5호 1면에 실린 두편의 기사를 보고 동성애자인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성애 남성을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소식지, 동성애자들의 올바른 문화 창조와 권익을 표방한다는 '친구사이'가 동성애를 매도하는 기사들을 아무런 여과없이 그대로 실을 수 있는가 해서이다.

그 기사중 하나는 미국 기혼남성 사이에서 양성연애가 성행해서 에이즈가 두 배 이상 확산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동성애가 성행해서 에이즈가 확산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양성애 또한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유로운 성경향의 하나이다. 에이즈 확산의 문제는 그것이 이성애인가, 동성애인가, 양성애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에이즈 예방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가, 아니면 소홀히 하는가에 달린 문제인 것이다. 동성애가 매도되고 있는 사회적 담론중의 하나인 '동성애가 에이즈를 퍼뜨린다'라는 편견을 앞장서서 고쳐가야 할 당사자인 '친구사이'가 자신의 일 굴인 소식지에 그러한 편견을 유포하는 글을 실는다는 것을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또 하나의 기사는 '딸을 과보호하면 레즈비언이 된다'고 하는 어느 학자의 주장이다. 태국의 저명하다고 하는 왈롱 피야마 노탐이라는 교수는 '딸이 남자 친구와 데이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결혼상대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성적관심의 동성으로 향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학자의 말대로라면

동성애여성모임 "끼리끼리" 전 해 성

조선시대의 우리나라는 레즈비언의 천국이었어야 했다.

그리고 이 학자는 또 '딸을 동성연애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길러주고 건전한 이성교제를 권장하도록 주문'했다한다. 이 말은 바꿔말하면 '동성연애자는 어려서부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기르지 못하고 건전한 이성교제를 할 기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불건전한 동성애를 하는 온전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동성애에 대한 증명되지 않은 가설들이 천차만별, 여기저기서 쏟아져나오고 있다. 그 대부분이 동성애에 대한 깊은 이해없이 꼬끼리의 다리만 만지는 격일 뿐이다. '친구사이'가 동의하는 가설이 아닌 한 어떠한 주장도 그대로 소식지에 실어서는 안된다. 만약 실어야 하는 경우라면 그 가설에 대한 '친구사이'의 의견이나 그 기사에 대한 설명이 곁들여져야 할 것이다.

'친구사이'에 대한 나의 애정이 이런 지적을 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동성애여성으로서 '친구사이'의 선구적 노력에 항상 보이지 않는 갈채를 보내고 있다. '친구사이'가 더욱 재미있는 소식지, 동성애남성들의 훌륭한 발언대로서 무궁하게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칠 것이다.

전 해 성

안녕하십니까?

저에게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마음먹은지 거의 일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많은 분을 만나려고 노력했고 또 그분들과 뜻을 모아보려고도 했습니다. 쉽지만은 않더군요. 모두 각자의 생각과 거기에 따른

축하합니다.

드디어 여성친구들이 '끼리끼리'라는 이름으로 여성동성애자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11월 27일, 28일 한탄강에서 멋진 발대식겸 MT에서 비디오 시사회를 위해 비디오와 텔레비전을 손수 짊어지고 간 '끼리끼리' 친구들의 열의에 박수를 보냅니다. 12월 10일 첫 소식지에 실린 전해성씨의 글을 소개합니다.

'끼리끼리'로 시작하여, '끼리끼리'를 넘어서

전 해 성

방식들이 달랐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는 그 다름들 속에서도 가장 근본적으로 공통된 생각, 진리라고 믿어온 '몽치면 산다'를 쉽게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가로막는 그 무엇인가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의 실체는 분명하지 않고 현란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힘이 아주 막강하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유명해진 '친구사이' 덕으로, '친구사이' 소식지에 나가고 있는 광고를 통해, '친구사이'가 소개된 잡지를 보고 연락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연락주신 그분들의 용기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한 법이죠.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많이 들은 말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을 못했는데 혜성씨에게 말을 하고나니 가슴이 시원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자기의 진정한 모습,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중의 하나를 그 누구에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숨겨야 하는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그 중 몇몇분한테서는 어둠을 느꼈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매우

다름에 대한 포용이 가능한 사회

아카데미 수상작 <크라이밍 게임> 방송불가 판정을 보고.

방송위원회 (위원장 김창열)는 10월 24일 MBC TV가 11월 1일 방송예정이었던 영화 '크라이밍 게임'에 대해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 위원회가 밝힌 방송 불가이유는 '동성애를 소재로 한 영화여서 국민정서와 어긋난다'는 것.

이에 대해 MBC '주말의 명화'팀은 동성애를 다룬 이 영화의 방송여부를 놓고 고심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성애 묘사가 전혀 거부감이 없고 아카데미상을 받을 정도로 작품성이 탁월하다는 최종 판단에 따라 문제가 될 장면을 삭제하는 선에서 방송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거의 모든 영화의 소재가 되고 있는 불륜, 배신, 살인, 강도, 강간 등과 마찬가지로 동성애는 먼 외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더 이상 숨겨서는 안되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다. 동성애가 국민정서와 어긋나서 방영을 금지하더니, <크라이밍 게임>을 보고 사람들이 갑자기 동성애에 호기심을 느끼고 빠져들 것이라고 생각하기라도 했던 것일까? 그러면 살인, 강도, 강간을 소재로 한 영화는 왜 방영하는가? 문제를 드러내 놓고 함께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숨기려고만 하는 참으로 후진적이고 단순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에는 적어도 수십만의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의 폭력적이고 무분별한 편견 때문에 순간순간을 치열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동성애가 이미 비정상적인 성의 형태가 아닐 뿐더러 극히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인간 정서의 한 부분이라고 정의된지가 언제인데 아직 우리 사회는 동성애에 대한 존재 자체를 거부하려고 하는지 한심스럽기만 하다.

이는 최근 들어 경제적, 정서적,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급속한 변화를 맞고 성이 예전에 비해 많이 개방되었다고는 하지

만 여전히 남성 중심의 편협한 개방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의 한 단면이다. 국민 정서 즉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것이 꼭 올바른 가치관일 수는 없다. 더구나 그 국민정서라는 것이 100년전의 노예제도나 칠거리악처럼 실상은 편협하고 기독교 충에게만 유리한 이기적인 정서라면 더욱더 그렇다. 여전히 TV 드라마는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고 미화하고 있으며 남성의 거부적인 지위를 고취, 장려하고 있다. 부부관계라는 것이 상호존중과 다정함에 기초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이 TV에서는 그런 남편을 공처가쯤으로 우스꽝스럽게 비추고 자기주장이 강한 여자는 예외없이 독신녀나 이혼녀 혹은 신경질적이고 히스테리컬한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비추고 있다.

남자는 무조건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무조건 여자다워야 한다는 이분법적이고 지극히 단순한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크라이밍 게임>에서 여장을 한 남자가 등장했으니 이 영화는 동성애라는 금기를 건드렸을 뿐만 아니라 남성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이다.

흑인이면서 게이인 주인공이 겪는 이중적인 소외와 복아이에 반군인 퍼거슨의 인간애에 중점을 둔 이 영화 어디에 동성애를 아름답게 묘사한 장면이 있는가? 주인공 남자는 남장여자가 옷을 벗었을 때 토하기까지 하지 않았는가?

결국 동성애가 국민정서와 어긋나서가 아니라 동성애라는 부분을 숨기고 싶어했던 것이다. 성에 관한한 무조건 감추기에 급급했던 조선봉건시대의 부끄러운 관행의 연장을 벗어던지고, 좀 더 인간에 대한 이해와 관용으로 사물을 파악하려는 자세를 방송위원회 측이 가졌으면 한다.

<준석>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자꾸 안으로만 움츠러들고, 자기를 소외하는 세상을 비관하게 되어 결국엔 자신의 삶까지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분들을 만나면서 든 생각은, 이 땅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혼자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살고 있을까. 그 고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명을 다하지 못해 운명을 탓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느 한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은 아름다운 것이지 결코 추악한 것일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놀라웠던 것은 자기를 특별하지 않게, 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동성을 좋아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알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아무튼 이런 분들을 본다는 것은 기분좋은 일이고 제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상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본 결과, 다섯분이 모임을 만들자는 의견을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까지 여섯명이죠. 모임을 결성한다고 해서 뭐가 당장 되는 것도 없습니다. 일단은 자

기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생활의 큰 기쁨이자 힘이 되기에 그러한 고정된 만남의 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으로 밝고 활기있는 생활을 계획하고, 나아가 성공적인 삶, 어떠한 사람도 소외당하지 않는 인간적인 사회까지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끼리끼리'가 탄생되기까지는 무척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끼리끼리'의 탄생에 많은 힘이 되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끼리끼리'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을 하는 곳도 아니구요. '끼리끼리'의 울타리는 넓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보자는 모임입니다.

<گ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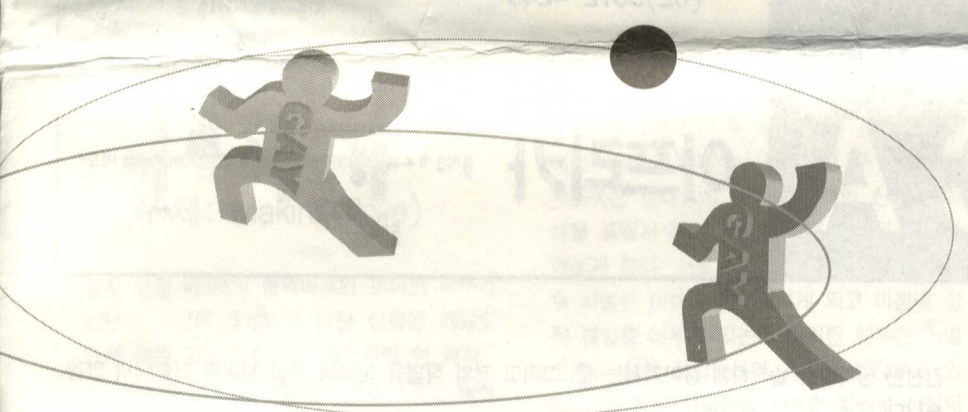
"끼리끼리" 연락처

주소: 110-618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1816호

호출: 015-217-4179 발신자 전화번호 + 79

전해성



수필

결혼에 대한 명상

창세기에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커다란 소명은 결혼이다. 이브가 탄생한 것도 생식을 위한 것이었고, 오난이라는 사람이 피임을 했다가 천벌을 받은 것, 롯의 딸들이 아버지의 침실로 들어가고, 유다가 며느리와 결혼한 것 등은 모두 출산을 위한 결혼이 인간의 의무임을 지적한다.

과거 우리나라도 농경과 제사문제도 代를 잇는다는 생각때문에 기인했고, 출산과 아들의 신화가 있었으며 아직까지 우리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 결혼은 더 이상 자녀출산이 제일의 명제가 아니다. 동성연애도 출산과 관계 없는 sex라는 점 때문에 비난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현대인에게 있어서 sex는 단순히 출산을 위한 목적 이외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쾌락화, 상품화, 저질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영위하고 즐기는 것이지, 생식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이미 사라지고 있다. 결혼은 더 이상 출산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마음에 맞는 두사람이 한길을 걸어간다면, 그 둘의 속성이 어떠하든 우리는 그 커플을 비난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통념상으로 이루어질수 없는 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그 결합은 정당한 것이다.

지금의 나를 비롯하여 많은 이들이 결혼에 대하여 심한 마음 고생을 하고 있다. 집에서는 매일 아가씨를 데려오라 성화이고, 밖에서는 나이든 미혼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다. 그러나 결혼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사생활이고 부분이고 보면 하나의 선택사항이지 필수요건은 아닌 듯 싶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동체적 (나는 봉건적 잔재라 부른다) 유대가 잔존해 있어 남의 사생활에 대한 간섭, 비난이 심하다. 나이든 미혼자는 별종도 아니고 수치감,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나이가 왔으니 아무나하고 짝짓는다면 동물의 교배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결혼에 대한 편견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동성간의 결혼이 해외 topic란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얼마전 <결혼피로연>에서 본 늙은 부모님의 뒷모습이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그들의 슬픔은 기성사회의 고정관념이 가져다준 선물이다. 의식의 개혁만이 그 늙으신 부모님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갈 것이다.

<홍>

인물탐구

“차이코프스키”

작년은 쇼트트 일리치 차이콥스키 서거 百주년이라 많은 행사가 열렸다. 그의 음악은 러시아의 정서를 가장 잘 나타냈고 우수어리고 슬프면서도 내면에 어떤 희망과 힘을 암시하는 듯하다. 또 곡이 쉽고 친근하여 클래식 초보자라도 금방 익숙해져 때로는 통속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그에게 더욱 애정이 가는 것은 그가 사망한 이유에 그의 동성애 행적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그 충격으로 평생 우울증세가 있었다 한다. 그가 법대에 다닐 때부터 학생들 사이에선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었고 그도 역시 그 물결에 휩쓸려 이후 여제자와의 결혼을 시도하나 곧 파탄나 버린다.

제정 러시아의 폭압적인 통치, 보수적인 귀족사회에서 그의 예술과 사랑은 한없이 고통스럽고 외로운 것이다. 폰 메크 부인이라는 부유한 미망인의 경제적, 정신적 후원에 힘입어 많은 대작들이 탄생하였다. 발레음악에서는 <백조의 호수> <잠자는 미녀> <호두까기 인형>이 거의 대명사처럼 되었고, 피아노협주곡이나 Violin 협주곡도 다른 작곡가의 작품보다도 더 많이 연주된다. 교향곡 6번 <비창>과 같이 애잔

한 선율도 역시 심금을 울릴 만하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폰 메크 부인의 후원이 중단되고 동성애에 대한 소문이 그를 끊임없이 괴롭힌다. 당시 그런 소문에 휘말리면 지위와 명예를 한꺼번에 잃고 상류사회에서 도태되는 비운을 겪게되어 있었다. 여태까지 그의 사망원인이 추정하건대 경제적 정신적 빈곤함에 몰려 자살했거나 옛날 법대시절의 파트너들이 자기들에게 다가올 파문이 두려워 독살을 한 듯하다. 얼마전 차이콥스키와 사랑을 나누던 어느 청년의 아버지가 차이콥스키에게 보낸 항의편지가 발견되었다 한다. 우리는 여기서 한 예술가가 놀라운 감성으로 위대한 곡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그의 재능을 짓밟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직도 모스크바에는 차이콥스키 음악원이 있고, 해마다 콩쿠르가 열려 그가 러시아의 대표적 작곡가라는 데는 누구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인간적인 고뇌와 내면의 슬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과 그리움이 그런 아름다운 곡들을 뽑아내는 물레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별로 생각하는 이가 없어 안타깝다. 가을과 겨울이 다가오면 더욱 그의 음악이 나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우연함이 아닌 듯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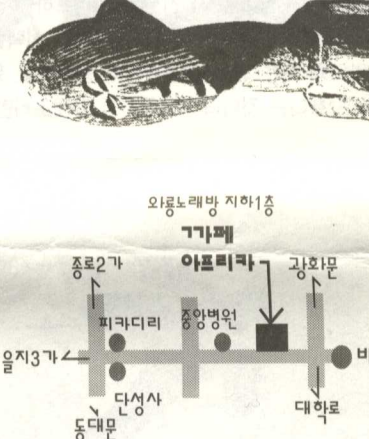
초원의 바람과
밀림의 열기가
그대의
뜨거운 숨결과 함께
재즈 선율 속에
녹아드는 곳
카페문화의
Something New



AFRICA

PM 1:00 - PM 12:00
비원에서
종로3가쪽으로,
와룡노래방 지하
(02)3672-4249

카페
아프리카



와룡노래방 지하1층
7가짜
아프리카
종로2가
피카디리
종양병원
광화문
을지3가
대명사
동대문
대하로

징검다리

징검다리는 친구사이 소식지의 팬팔 코너입니다. 참다운 만남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편지를 통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눈다면 누구보다도 중요한 사람을 만날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마음에 드시는 상대가 있다면 친구사이로 '징검다리 담당자' 앞으로 편지를 주십시오. 여러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다음 소식지부터 징검다리는 빠집니다.)
1. 저는 전주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제 나이는 28세이며 키는 163cm, 몸무게는 49kg으로 아원 타입이며 취미는 독서입니다. 성격은 순중형이고 직업은 회사원입니다. 모든 면으로 볼때 얼굴이나 목소리가 여성스러운 편입니다. 바라는 상대방은 30대 이상의 조용한 성격의 회사원을 원하며 변함없고 하는 일에 열중하며 노력하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 저는 20세의 학생입니다. 165~175cm의 키. 29세 이하의 좀 마르고 성실하시고 오랫동안 편할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부산에서)
 3. 저는 29세의 직장인입니다. 180cm의 키에 70kg으로 조금 큰 편이죠. 20대나 30대 초반의 편안한 사람을 원합니다. 물론 자유롭게 교재할 수 있는 분이면 좋구요. (수원에서)
 4. 저는 21살의 173cm에 60kg 정도이며 광고디자인과를 다니다가 현재는 휴학한 학생입니다. 자랑 나이가 비슷하고 175cm 정도의 선하게 생긴 여드름 없는 얼굴의 부드러운 생머리를 가진 분을 친구로 사귀고 싶습니다. 착한 심성에 밝고 쾌활하며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며 유머와 재치가 있으며 때론 진지해지는 분. 하지만 이런저런 조건없이 부담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도 좋습니다.
 5. 175cm의 키에 나이는 28세입니다. 현재, 경력 5년의 헤어디자이너이고 음악과 영화를 좋아합니다. 솔직하고, 깔끔한 걸 좋아하고 외모는 깨끗합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거나 30대의 건강하고

- 건전한 생각으로 솔직하게 살아가시는 분, 그리고 저의 직업을 이해해 주실 분이면 더할나위 없습니다.
6. 저는 20대 후반의 직장인이고 키는 173cm, 몸무게 65kg의 보통체격에 여행(등산)과 영화 좋아하고 외모는 깔끔하며 성격은 차분한 편입니다. 원하는 상대는 부산에 사는 분이면 좋겠고 대, 보통체격에 건강하고 자신의 일에 열심히 살아가는 분이므로 아름다운 분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부산에서)
 7. 저는 28세이고 키 175cm, 몸무게 68kg의 깔끔한 용모에 귀공자 타입입니다. 대학을 졸업했으며 무척 남성적인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여행과 등산, 수영을 좋아합니다. 같은 20대이고 175cm 정도의 날씬하고 귀공자 타입의 겸손하며 진실되며 서로를 아껴줄 수 있는, 정말 순수한 건강한 분이면 좋겠습니다.
 8. 저는 28세의 직장인으로 러시아어를 전공하였고 175cm의 키에 마른 체형입니다. 제가 첫분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의 학생이나 직장인으로 이해심많고 포용력이 넓은 제게 따뜻한 슴으로 감싸줄 수 있는 진실된 분이 필요합니다. 영화나 음악을 사랑할 수 있고 건강한 웃음을 닮 분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9. 저는 20대 후반이며, 키, 몸무게, 신체적 조건은 평균정도입니다. 무척 쾌활하고 성실한 편입니다. 나의 생각을 교류하고 여행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광고업을 하고 있으며 일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항상 바쁜 편이고 독서를 좋아합니다. 혼자 살고 있고 건강합니다. (산에서)
 10. 마음편히 이야기할수 있는 사람을 사귀고 싶습니다. 30대~40대 정도. 깔끔하고 질리지는 얼굴. 형처럼 포근하게 기댈 수 있는 신사분을 원합니다. 저는 26세로서 공무원이고 원만한 깔끔한 용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170cm의 키에 63kg입니다.

LOVE STORY !!?

BY Smile



Video Book

비디오방에서 빌릴 수 있는 영화

두 남자 (원제: Making Love)

결혼 생활 8년째의 행복하게만 보이는 부부가 남편이 자신의 동성애에 대한 성향을 깨달으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가 줄거리인 이 영화 '두 남자'는 영화적 완성도가 뛰어날지는 않지만 마치 T.V 드라마를 보듯이 부담스럽지 않게 감상하고 한번쯤 동성애와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이다.

1981년에 제작된 이 영화는 아서 힐러가 감독하고 92년 2월에 대우 비디오에서 출시되었다.

한글로 읽을 수 있는 소설

거미여인의 키스

1976년에 발표된 거미여인의 키스는 군정체하의 70년대 아르헨티나를 배경으로 두 죄수의 감방 생활을 그린 소설이다. 어린 소년을 수행한 혐의로 들어온 디스플레이어 모리나는 고전적 여성을 연상시키는 매우 섬세한 감성을 지닌 동성애자이고 정치범으로 체포 투옥된 발렌틴은 과격파의 일원으로 정의감 강한 사회주의자이다. 무료하고 고독한 감방생활에 모리나는 자기가 본 영화 이야기를 끊임없이 발렌틴에게 들려주는데 그의 영화 이야기는 두 사람의 의식이나 심리를 미묘하게 결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편 모리나는 교도소 소장으로부터 석방을 미끼로 발렌틴의 조직에 대한 정보를 캐낼것을 명령 받는다.

서로 이질적인 두 사람이 한 감방에 수용되어 때론 충돌하면서 지내지만 두 사람간의 부조화는 상대방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와 이해를 통해서 점차 극복되고 두 사람의 우정이 싹트게 된다. 서로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으며 두 사람은 이윽고 가까워지게 되고 마침내 성적 결합을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는 혁명운동과 성의 해방운동의 결합을 상징하고 있다. 아울러 두 사람간의 완전한 화해로 상징되는 성적 결합은 전혀 상반되는 두 인간의 극적인 합일을 보여주고 있다.

모리나는 진심으로 발렌틴을 사랑하게 되고 석방을 빌미로 정보 입수를 재촉하는 소장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입을 다문다. 마침내 석방되는 모리나는 발렌틴이 부탁한 메시지를 그의 지하운동 동지에게 전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신변을 정리해 둔다. 정보요원들이 계속 모리나를 미행하는 가운데 모리나는 연락을 취해 약속 장소를 정하고 접선을 시도하지만 뒤따라온 형사들에게 발각된 모리나는 결국 지하 운동 단체의 차량에서 자백을 두려워한 지하단체가 발포한 총탄을 맞고 숨을 거두게 된다.

이 소설은 착취적 성애의 문제는 동성애가 착취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이성애를 모델로 하고 있는 한 스스로를 해방시키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바꿔 말하면 착취 관계에 기초한 이성애, 더 나아가 착취 관계를 위해 성립된 사회 그 자체의 비판을 의미하고 있다.

인간의 근원적인 화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소설은 남미 작가인 마누엘 피코가 쓰고 우리 나라엔 1990년 가람기획에서 출판되었다.

GOOD FRIEND

가장 깊은 곳은 가장 따스한 자리
오늘은 나를 만나야 한다. 내가 있는 곳!

인근동
남원상가
허리우드극장
종로2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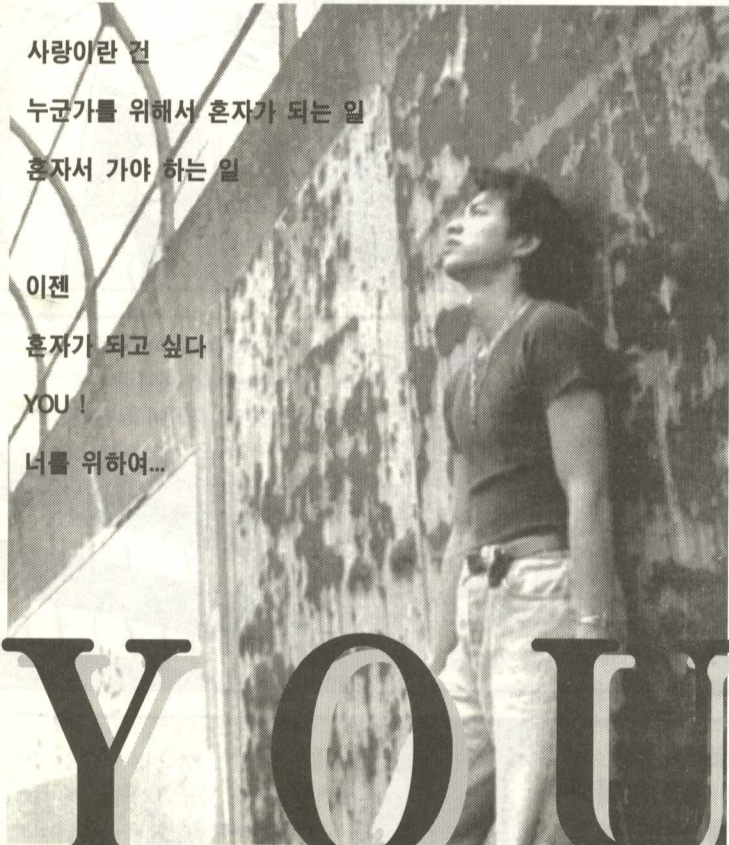
리바이벌
가가페
굿 프렌드
파고다공원

카페
굿 프렌드
TEL: 02-744-8843

사랑이란 건
누군가를 위해서 혼자가 되는 일
혼자서 가야 하는 일

이젠
혼자가 되고 싶다
YOU!
너를 위하여...

YOU



수원역앞 매산시장 내 순대타운 옆건물 1층
TEL: (0331) 256-1025
카페 & 단란주점

YOU

종로 허리우드 극장앞, 스타 앞
매일밤 11:30-12:00 봉고 대기

열명의 동성애자들의 삶, 그리고 사랑과 좌절...
한국 최초의 동성애 수기집

“더 이상 슬프지도 부끄럽지도 않다”



동성애자들에게 흐르는 뜨거운 피와 눈물, 그리고 세상을 향해 던지는 사랑과 삶의 본질적 질문들을 이 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월 중순 발간
전국 서점 배포

(전화, 우편주문 가능)

장자못 출판사

전화: 453-7656~7 팩스: 453-7658

친구사이에서는 여러가지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매번 장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동성애에 대해 관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할 일을 못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행사를 주최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실 수 있는 뜻있는 분을 찾습니다.
친구사이로 연락바랍니다.

친구사이 전화번호는 (02) 3141-7942입니다.

전화를 통한 고민 상담, 에이즈 상담은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토, 일요일은 3시부터)

친구사이 주소는 (우) 110-612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1246호입니다.
많은 상담 전화, 많은 편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친구사이

친구사이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글쓰기가 좋거나 혹은 소식지 편집 및 디자인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어학실력이 좋은 분들 중에 동성애 사회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싶으신 분이면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밝은 동성애 사회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며...

마무리...

친구사이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달에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친구사이 운영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식지 친구사이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40여곳의 업소에서도 무료로 배포되고 있으며 서울의 극장가, 대학로 등지에도 배포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자신의 성경향(性傾向)으로 고민하는 문의 및 상담전화도 걸려오고 있으며, 친구사이의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뜻을 펼치기 위한 최소 필요적 경비는 아직도 회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희생으로 지拂되고 있습니다. 이에 친구사이는 소식지 '친구사이'의 지속적 발간과 여러가지 활동(영화의 밤, 체육대회, 기타 인권지 및 동성애 수기 발간 등)을 위하여 뜻있는 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금액 : 1000원 ~ 무한대
계좌번호 : 서울 신한은행 38907-0951404
김철중 앞

* 은행송금이 실명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곤란하신 분은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주소: 110-612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1246호
친구사이 앞

(후원자분께는 친구사이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초대하고
원하시는 장소로 소식지를 발송해드립니다.)